

화물연대 총파업 파장과 전망

삼성·기아차·포스코 등 수출 차질

기업·자치단체 비상 수송대책 강구…건설노조도 27일 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선언함에 따라 광주·전남 산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노조도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24일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와 산업체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기아차 광주공장 서문과 광양컨테이너부두, 여수산단 등 광주·전남지역 5곳에서 25일 오전 11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표준임제 법제화, 운송료 30% 인상, 유류세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경선 화물연대 광주지부 사무부장은 “2008년 총파업 당시 정부는 표준 운임제 도입을 약속했다”면서 “이번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투쟁”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앞서 지난 2월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80.6%의 압도적인 찬성을通过对업을 가결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는 화물차량이 1만3000여대에 달한다. 이 중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은 2500여명이며, 대부분 수출과 관련한 대형 화물과 컨테이너 차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운송차량 60%,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수출 운송차량 100%, 금호타이어 운송차량 50% 가량이 조합원들”이라며 “파업이 현실화되면 물류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기아차 광주 공장,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금호타이어,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지역 대

기업들과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이 수출 차질 등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이들 대기업은 비조합원 위주의 비상 수송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비조합원과 운송회사인 글로비스의 직영 운전자들을 투입해 차량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이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도 예비차량 500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는 관계회사인 대한통운이 운송을 책임지기로 했다.

여수산단과 광양항도 화물연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다. 대책본부에는 광주시와 각 자치구, 코레일, 경찰, 31사단, 화물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

난 21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화물연대 파업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차량으로 물류기지·항만·건설현장 등의 봉쇄를 예상해 주요 거점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했다.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 건설기계지부는 25일 오전 10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일부터 총파업에 동참한다.

광주전남지부는 △8시간 노동 정착 △체불·여유 균형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의무 작성 △불법 단계 하도급자 퇴출 △노동기본권 행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덤프트럭·굴착기·레미콘·불도저 등 건설기계를 다루는 노동자들로, 광주·전남지부 조합원은 2000여명이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백화점 가요제

2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정문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1회 롯데가요제’에서 시민들이 노래와 댄스 등을 선보이며 정기자랑을 펼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5월 전월세 거래 작년보다 1.6% 증가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한 달간 전국 전월세 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한 11만8100건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월 12만3000건보다는 4% 가까이 줄어들며 지난 3월 이후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5월까지의 누계 거래량은 58만26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0.9%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작년 5월보다

3.1% 늘어난 3만8700건으로 집계되는 등 수도권이 8만400건으로 2.2% 증가했다.

지방은 3만7700건으로 0.4% 증가했다.

서울의 강남 3구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줄어드는 등 올해 들어 감소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이 5만4100건으로 0.5% 감소했고, 아파트와 주택은 6만4000건으로 3.5% 증

가했다. 계약유형별로는 전세 7만7300건(66%), 월세 4만800건(34%)이다. 아파트는 전세 3만9800건(75%), 월세 1만4300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월세 가격은 전월과 큰 변동없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전월세 실거래에 대한 세부정보는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나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기업체감 경기 3분기 하락세 전환

3분기에 기업체감 경기가 다시 나빠질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전국 제조업체 2500곳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BSI)을 조사한 결과 3분기 전망지수가 전분기보다 11포인트 하락한 88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기업의 체감경기를 0~200으로 수치화한 기업경기전망(BSI)은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반대의 의미다.

2010년 2분기(128)부터 올해 1분

기(77)까지 7분기째 내림세를 보였던 경기전망지수는 올해 2분기 99로 ‘반짝’ 상승한 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대기업과 수출부문은 각각 25포인트와 15포인트 하락하며 중소기업(-9포인트)과 내수(-10포인트)보다 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세계경기의 침체가 수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수출비중이 높은 대구·경북권이 80으로 가장 낮았고 동남권도 조선업 불황 탓에 82까지 떨어졌다.

/연합뉴스

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업정 대응”

국토해양부는 22일 화물연대가 25일부터 집단운송거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업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2003년과 2008년 집단 운송거부 등 불법행위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화물연대가 최근 국내외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고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무리한 집단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불법 교통방해나 운송방해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 주동자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불법집단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기로 했다.

/연합뉴스

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또다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고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무리한 집단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불법 교통방해나 운송방해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 주동자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불법집단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기로 했다.

/연합뉴스

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이달 지원자금 운용기준을 개정, 기존의 5대 전략지원부문(전자부품·금형 산업·자동차 부품·광산업·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4개 부문(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1차 철강·금속가공제품 및 농림어업부문)을 추가했으며, 전략산업에 대해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의 50%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기아차 ‘올해의 자동차 메이커’

영국 소비자단체 ‘Which’ 선정

기아자동차는 영국 최고 권위의 소비자단체인 ‘Which’로부터 ‘올해의 자동차 메이커(Best Car Manufacturer)’로 선정됐다.

1957년 설립된 ‘Which’는 회원 수가 65만명에 이르는 영국 최대의 소비자단체로 영국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발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매거진과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기아차는 올해 평가에서 최고의 고객 만족도와 우수한 내구 품질 등을 인정받아 BMW, 스코다, 도요타를 제치고 자동차 부문 최고의 영예인 ‘2012 올해의 자동차 메이커’로 뽑혔다.

기아차는 전 라인업에 걸쳐 최고의 상품성을 갖춘 모델을 선보이고 있을뿐 아니라 업계 최장의 7년 보증 등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인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Which’는 기아차의 신형 리오(국내명 프리아), 쏘렌토(국내명 쏘렌토R), 피칸토(국내명 모닝)가 모두 실험 테스트에서 매우 인상적인 결과를 보였고, 신형 씨드와 옵티마(국내명 K5)는 로드 테스트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의산지방국토관리청

신임청장에 구자명씨



의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구자명(56)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이 임명됐다.

구 신임 청장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대천고와 방송통신대, 인하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지난 1975년 9급으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디뎠으며, 건설교통부 물류산업팀장,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장·대중교통과장 등을 역임했다.

구 신임 청장은 25일 오후 의산국토청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한 뒤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친환경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돋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 50% 확정!!

태양광시스템으로 별도로 전력을 주택전기에 사용되고 남는 전기는 한전으로 전역됩니다. 역전송시에 한전계량기를 거꾸로 돌림으로서 전기료를 약 80~90% 전역시켜 줍니다. 비기오거나 흐린 날씨에도 태양광은 소수전력이 생산되지만 별전량이 사용량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한전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 설치 후 효과

-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 누진요금이 걱정인 곳
- ◆ 계량기 가 거꾸로 돌아간다
-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 절감

3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300~350KWh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 시켜드립니다.

기준구요금(사용전력량 kWh)일때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 요금

8만원 (약 41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일 때	약 9,800원	약 11,100원
15만원 (약 6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 062-512-1180 / H.P 011-659-7001

전 | 남 | 영 | 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물건번호 1)

■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 법원최초 법사가 : 9,518,275,000원

■ 부동산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와 1필지 (전남방지 입구대로변으로 접근성이 용이)

■ 물건종별 : 의료시설

■ 토지면적 : 9,517 m²

■ 건물면적 : 7,305.36 m² (지하 1층, 지상 3층)

■ 2010년 신축건물 상태 매우 양호

문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